

한국의 지역별 자살률 변화와 요인 분석

Changes and Factors of Suicide Rate by Region in Korea

이용재, 김경미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Jae Lee(123peter@hanmail.net), Kyung-Mi Kim(hsj030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 자살률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요인의 변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시·군·구 자살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서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1인당 지방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셋째, 사회통합요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넷째, 사회해체요인의 경우 조이혼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경제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지역 내 사회해체 현상의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자살률 | 경제적 요인 | 사회통합 요인 | 사회해체 요인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regional policy for reducing suicide rate by confirming the change of local suicide rate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5 and the effect of change of local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of city, county, and province suicide rate in 10 years showed that the suicide rate decreased in order of military district, city area, and district. Second, in the case of economic factors, local suicide rate decreased as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increased, and as the financial self-reliance increased. Third, in the case of the social integration factors, the local suicide rate decreased as the ratio of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 decreased. In addition, local suicide rate decreased as the number of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increased. Fourth, in the case of the social demolition factor, the region where the divorce rate is increased, the depression experience rate is increased, and the region where the rate of one person is increasing, the local suicide rate is increas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suicide rate can be reduced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 economic capacity of the whole region, social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the social disintegration phenomenon in the region.

■ keyword : | Suicide Rate | Economic Factor | Social Integration Factor | Social Demolition Factor |

* 이 논문은 2017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0299)

접수일자 : 2018년 03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4월 30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30일

교신저자 : 이용재, e-mail : 123peter@hanmail.net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2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한국사회의 지역에 따른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루어낸 경제적인 급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국민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몇 차례의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전반의 가족관계 약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우울증·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경제난과 관련하여 생계형 자살이 증가하고 가족을 동반한 자살이 빈번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또한 진직 대통령의 자살, 낯모르는 익명적 타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집단 동반자살, 급증하는 노인자살 등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해체를 알리는 사건이자 신호라고 설명하며, 사회구조가 병리화되고 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2]. 따라서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사회적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자살은 개인이 속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문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살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맞춘 것이었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역별로 이루어진 연구나 우리나라 성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4].

기존의 자살과 지역을 연계한 연구들은 단순한 지역별 자살률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요인을 확인한 연구들이다 [5-9]. 즉, 지역의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자살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변화는 어떠한지, 자살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

구는 전무해서 지역환경 요인의 변화와 자살률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자살 관련 요인변화에 대한 통계를 통한 자살감소 정책접근에 함의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자살률의 변화를 지역의 자살 요인의 특성변화로 평가하고 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자살률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 자살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자살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은 경제적 요인에 관심을 갖는 자살의 경제학이론, 사회통합이론, 사회해체이론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살의 경제학 이론은 경제요인과 자살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으로 해멀메쉬와 소스가 주장한 것이다 [10].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자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데, 평생 동안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의 현재가치가 일정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자살하게 된다고 보았다 [10]. 따라서 소득이 자살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기대효용이 낮아지면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11]. 해멀메쉬와 소스(Hamermesh & Soss)는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은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사건이 발생하면 자살률이 증가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13].

또한 경제위기는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대, 소득의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부 및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화단절, 가족폭력, 가출, 이혼 등과 같은 사회해체 요인으로까지 발전시키며, 결국 경제위기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살률이 증가한다 [13].

한편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을 기반으로 국가별 살인율과 자살률에 대해 연구한 신동준 [14]은 세계 가

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자료를 이용하여 아노미 이론의 핵심 변인인 경제성공 추구 문화를 조작화하였다. 또한 경제성공 추구 문화와 불평등이 살인률과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결과 경제적 차별은 살인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 불평등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14]. 그는 경제적 지표와 자살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업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실지수와 자살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반면, 소득분배와 관련한 지표들과 자살률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즉, 사회가 어떤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자살률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역의 소득 분배 양상에 따라 개인의 자살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14].

자살의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빈곤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감안할 때, 자살률의 변화는 경제이론에 의해 예측될 수 있고 경제 변수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살률은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면 증가한다고 예상하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낮게 나타난다[6]. 다시 말해 자살의 경제학 이론은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살은 소득이나 지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5]. 개인의 지위가 낮거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경우, 우울함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며, 자살 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될 확률이 증가한다[15-18]. 이는 빈곤 자체가 정신건강이나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자살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5]. 또한 경제적인 위기는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겨주면서 자살의 유발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채 역시 우울감을 가중시켜 자살을 유발할 확률을 증가시킨다[19][20]. 실업률이나 경제성장률과 같은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자살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1], 자살률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시계열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실업률,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경제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다. 그 중 유영직(2014)은 재정자립도를 사

용한 연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얻었으며, 주유형(2014)은 1인당 지방세가 자살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민간의료가입여부, 1인당 GRDP,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1인당 광산업체 생산액, 산업화 수준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통합 이론을 살펴보면, 뒤르케임(Durkheim) [3]은 한 사회의 자살률은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자살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면서 그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의 자살률을 사회학적인 변인들 사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규제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사회통합이나 사회결속력이 약할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며, 자살통계의 안정성과 자살률이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맺고 있는 일관된 상관성은 자살의 경향이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임을 밝혀냈다[6]. 또한 뒤르케임(Durkheim) [3]은 사회적 통합의 부족은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자살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면서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준의 파괴로 인한 사회적 규제의 약화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2]. 이처럼 뒤르케임(Durkheim)은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자살의 유형을 사회통합도와 사회구속정도에 따라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 그리고 운명적 자살(Fatalistic Suicide)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통합의 대리지표로서 사회복지지출비와 자살율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적지 않으며[23], 사회복지지출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경제적 위기에 최저생활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한다[23].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통합요인은 사회복지요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또는 수급자 수, 복지예산비율, 사회보장예산비율, 초졸생률, 여가시설 수, 보건의료시설 수, 의료복지시설 수, 체육시설 수, 공원면적, 문화시설 등이 있다. 그 중 주유형(2014)와 김민영(2013)은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자살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빈곤, 잦은 인구이동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성, 그리고 인종적 이질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범죄와 무질서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또한 대도시의 확산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를 통제해 오던 이웃이나 지역공동체가 더 이상 사회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범죄와 자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4]. 사회해체이론은 초기의 사회생태학적 이론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초기 미국의 사회학적 이론은 뒤르케임(Durkheim)과 토니스(Tonnies), 그리고 짐멜(Simmel)의 영향으로 도시 거주민과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22].

사회해체이론은 파크와 버제스(Park&Burgess)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의 영향을 받았다[24]. 그들은 도시성장을 5개의 동심원지역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생태학 원리의 대표적인 학자는 쇼와 맥케이(Clifford shaw&Henry Mckay)가 있다.

시카고학파는 도시의 사회질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생과 협동, 경쟁, 그리고 주기적인 변화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 인간은 생태학적 과정을 규제하는 가치 등의 문화를 발달시킨다고 가정하였다[24]. 파크와 버제스(Park&Burgess)는 동심원가설을 중심으로 각 지대의 문화와 관습, 일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탈은 사회해체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25]. 또한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원래의 거주민이 교외로 나가게 되는 인구이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존재하던 공식적인 사회조직이 해체되고 지역사회가 전이하게 되어 주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25]. 이와 같이 도시가 성장하고 확산되어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구조적으로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고 공동체의 해체는 가족, 놀이집단,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쇼와 맥케이(Clifford shaw&Henry Mckay)는 지속적인 변화, 이주민 문화의 전파, 산업화

등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조직, 전통과 제도 등을 와해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의 전파를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도시의 생태가 비행이나 일탈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25]. 사회해체가 만연한 곳에서 더 많은 사회적 고립이 존재하며[26], 타인들로부터의 고립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해체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단독가구 비율, 미혼자 비율, 인구이동율, 인구밀도, 이혼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이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대체로 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27].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회해체요인의 지표를 살펴보면 우울, 불면증, 스트레스,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생각, 조이혼율, 독거노인비율, 도시화율, 인구밀도, 인구이동율, 빈집비율, 노후주택비율, 농업비율, 고령인구비율, 하위사회계층비율이 있다. 그 중 박윤진(2012)은 우울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영직(2014)은 조이혼율이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10년간 통계청(KOSIS)과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이며, 분석단위는 시·군·구 227개 지역이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지역 자살률 변화율과 영향요인(경제적요인·사회통합요인·사회해체요인)의 변화율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영향요인의 특성별 지역의 자살률 변화율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변화가 지역 자살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은 2005년-2015년의 자살률 자료를 다운받아 전년도 자살률과 금년도 자살률로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변화율 10년 치를 모두 더하여 10년으로 나눔으로 자살률의 연평균변화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27개 시·군·구의 자살률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해메메쉬와 소스(Hamermesh&

Soss)의 자살의 경제학 이론과 뒤르케임(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 그리고 쇼와 맥케이(Shaw&Mckay)의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적 요인과 사회통합요인 그리고 사회해체요인으로 독립변수를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은 각각 하위변수를 설정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은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회통합요인에 따른 하위변수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사회해체요인에 따른 하위변수들은 조이혼율,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1인 가구비율로 선정하여 지역의 자살률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위와 같은 변수 선정은 선행연구 [6]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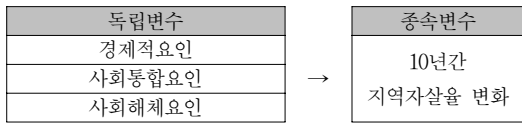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 활용한 통계분석 자료들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5-2015년 평균 지표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살 관련 요인의 특성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살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지역별 자살률의 변화 차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 지역의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본 결과 군 지역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이었다. 즉,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

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정신건강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농촌 지역의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2015년 기준으로 군 지역 자살률 35.1%, 시 지역 자살률 30.5%, 구 지역 자살률 26.1%의 순이었다.

표 1. 시·군·구 연도별 자살률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시	28.4	25.2	28.7	28.9	34.8	34.3
군	37.3	36.5	39.1	40.0	46.5	47.3
구	23.2	19.8	22.8	24.7	29.2	30.1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시	35.5	31.0	30.8	28.9	28.7	30.5
군	46.9	41.0	39.5	35.2	35.1	40.4
구	30.0	26.7	27.1	27.1	26.1	26.1

시·군·구별 자살률의 변화율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7.80명), 시(-2.42명), 구(-.81명) 순으로 나타나 군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가장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군 지역이 시와 구와 보다 더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표 2. 시·군·구별 자살률의 변화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시(a)	76	-2.42	4.34	47.036 ***	b(a,c)
군(b)	82	-7.80	6.07		
구(c)	69	-.81	2.76		
합계	227	-3.87	5.56		

2. 자살요인 변화에 따른 지역자살률 변화

2.1 경제학적 요인의 변화와 자살률 변화

우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평균변화율이 10-20% 미만(-5.94명), 20% 이상(-5.70명), 1-10% 미만(-2.23명), 1% 미만(-2.43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변화가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자살률의 감소가 큰 것이다. 즉, 지역경제가 호황일수록 지역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2%이상(-7.27명),

0~2% 미만(-6.20명), -2~0% 미만(-3.41명), -2% 미만(-1.94명)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지역에서 자살률의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증가하는 지역,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 지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 지표가 개선되는 지역일수록 지역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경제학적 요인의 변화율과 자살률 변화

1인당 지방세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1%미만(a)	47	-2.43	4.77	8,371 ***	a,b< c,d
1~10%미만(b)	81	-2.23	4.61		
10~20%미만(c)	68	-5.94	6.01		
20%이상(d)	30	-5.70	6.14		
합계	226	-3.85	5.56		
재정자립도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2%미만(a)	89	-1.93	4.59	11,25 5***	c,d< a,b
-2~0%미만(b)	64	-3.41	4.75		
0~2%미만(c)	46	-6.20	6.07		
2%이상(d)	28	-7.27	6.48		
합계	227	-3.87	5.56		

2.2 사회통합요인의 변화와 자살률 변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18% 미만(-5.27명), -18~8% 미만(-4.95명), -8~2% 미만(-3.12명), -2% 이상(-1.7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 -2% 이상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률의 변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의 평균변화율이 적은 지역의 자살률의 평균변화가 적었다. 대체로 지역경제가 안정된 지역이면서 빈곤층수의 급감을 경험하지 않는 지역에서 자살률 변화가 적은 것이다.

사회복지예산비율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예산비율의 변화율이 12% 이상 증가한 지역은 -2.89명으로 나타났으며, 8% 미만(-3.96명), 8~10% 미만(-4.17명), 10~12% 미만(-4.35명)순이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 변화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이 0% 이상일 때 -7.66명으로 자살률의 감소가 가장 컸으며, -1.5~0% 미만(-5.49명), -3~-1.5% 미만(-3.14명), -3% 미만(-1.51명)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수의 변화율이 낮을 때 자살률의 감소가 큰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시설 수는 다른 사회통합요인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한 폭에 상관없이 자살률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감소가 큰 지역, 여가복지시설의 감소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통합적 요인들이 강화될수록 지역 자살률의 감소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사회통합요인의 변화율과 자살률 변화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18% 미만(a)	55	-5.27	5.34	4,032 **	a,b,c <d
-18~-8% 미만(b)	52	-4.95	5.64		
-8~-2% 미만(c)	90	-3.12	5.74		
-2% 이상(d)	30	-1.71	4.29		
합계	227	-3.87	5.56		
사회복지예산비율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8% 미만	71	-3.96	5.72	.680	
8~10% 미만	59	-4.17	4.73		
10~12% 미만	49	-4.35	6.76		
12% 이상	48	-2.89	4.95		
합계	227	-3.87	5.56		
노인여가복지 시설수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3% 미만(a)	75	-1.51	3.48	13,656 ***	a,b< c(d)
-3~-1.5% 미만(b)	59	-3.14	5.19		
-1.5~0% 미만(c)	57	-5.49	6.35		
0% 이상(d)	34	-7.66	5.85		
합계	225	-3.88	5.56		
사회복지시설수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7% 미만	51	-3.84	5.86	.344	
7~11% 미만	52	-3.57	4.72		
11~16% 미만	70	-4.42	5.96		
16% 이상	52	-3.52	5.62		
합계	225	-3.88	5.57		

2.3 사회해체요인의 변화와 자살률 변화

우선, 조이혼율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조이혼율 -1% 이상(-5.73명), -3% 미만(-3.83명), -2~-1% 미만(-3.35명), -3~-2% 미만(-2.5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 -1% 이상인 지역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자살률의 변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이혼율의 감소가 -1% 미만인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이다.

스트레스인지율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살률은 -3% 미만(-4.97명), 0% 이상(-3.54명), -3~-1.5% 미만(-3.49명), -1.5~0% 미만(-2.73명)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 사회해체요인의 변화율과 자살률 변화

조이혼율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3% 미만(a)	69	-3.83	6.43	3,533*	d(a, b, c)
-3~-2% 미만(b)	60	-2.52	4.03		
-2~-1% 미만(c)	41	-3.35	4.43		
-1% 이상(d)	57	-5.73	6.15		
합계	227	-3.87	5.56		
스트레스인지율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3% 미만	76	-4.97	5.84	1,671	
-3~-1.5% 미만	41	-3.49	5.69		
-1.5~0% 미만	38	-2.73	5.19		
0% 이상	72	-3.54	5.29		
합계	227	-3.87	5.56		
우울감경험율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23% 미만(a)	62	-5.46	5.21	3,079*	a, b, c, d
-23~-13% 미만(b)	51	-4.00	6.39		
-13~-3% 미만(c)	82	-3.25	5.70		
-3% 이상(d)	32	-2.19	3.54		
합계	227	-3.87	5.56		
1인가구비율 변화율	N	자살률 변화율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12% 미만(a)	60	-6.31	5.36	8,211***	a, b, c, d
12~16% 미만(b)	51	-4.35	6.51		
16~20% 미만(c)	64	-1.76	2.93		
20% 이상(d)	51	-3.02	6.13		
합계	226	-3.84	5.55		

우울감경험율의 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경험율의 변화율이 -23% 미만(-5.46명), -23~-13% 미만(-4.00명), -13~-3% 미만

(-3.25명), -3% 이상(-2.1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우울감경험율 변화가 -13%이상인 지역이 -13% 미만인 지역보다 변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경험율의 감소율이 큰 지역이 자살률 감소율도 큰 것이다.

1인 가구비율 평균변화율에 따른 자살률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비율의 변화율이 12% 미만(-6.31명), 12~16% 미만(-4.35명), 20% 이상(-3.02명), 16~20% 미만(-1.7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16% 미만인 지역이 16% 이상인 지역에 비해 자살률 모두 변화율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인가구비율의 변화율 증가가 낮은 지역이 자살률 감소율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조이혼율의 감소율이 -1% 이상인 지역, 우울감 경험율의 감소가 큰 지역, 1인 가구 증가가 적은 지역의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회해체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요인 변화의 영향

자살률의 변화율 그리고 요인의 변화율(경제적요인, 사회통합요인, 사회해체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자살률의 변화율은 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부담액 변화율($r=-.132$)과 재정자립도 변화율($-.311$)이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지역 자살률은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변화율($r=.184$)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의 변화율($r=-.379$)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율은 자살률의 변화율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자살률은 사회해체요인인 1인 가구비율 변화율($r=.232$), 우울감경험율 변화율($r=.210$)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트레스 인지율 변화율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의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4.9%이며, 모형적합도($F=12.975$, $p<0.001$)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중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은 $t=-3.923$, $p<0.001$ 로 자살률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요인 변화율의 영향에 관한 모형적합도 ($F=4.927$, $p<0.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 변화율($t=2.542$, $p<0.05$)은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체요인의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789$, $p<0.001$). 분석결과 우울감경험율의 변화율

($t=2.156$, $p<0.05$)과 1인 가구비율 변화율($t=2.691$, $p<0.05$)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수록 지역 자살률의 변화가 적은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같은 사회통합 요소가 증가할수록 지역 자살률 변화가 적은 것이다. 아울러 우울감경험율과 1인 가구 비율과 같은 사회 해체적 요인이 증가할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주요변수별 상관관계

	자살 변화율	지방세 부담액 변화율	재정 자립도 변화율	복지예산 비율 변화율	노인여가 시설수 변화율	기초생활 수급비율 변화율	사회복지 시설수 변화율	조이혼률 변화율	1인 가구 변화율	스트레스 인지율변 화율
자살변화율	1									
지방세부담액 변화율	-.132*	1								
재정자립도변화율	-.311**	.132*	1							
복지예산비율변화율	.038	-.150*	-.015	1						
노인여가시설수변화율	-.379**	.119	.220**	-.181**	1					
기초생활수급자비율변화율	.184**	-.002	-.311**	.142*	-.265**	1				
사회복지시설수변화율	.041	.036	.043	.159	-.032	.289**	1			
조이혼률변화율	-.123	.079	.355**	-.104	.364**	-.343**	.034	1		
1인가구비율변화율	.232**	-.045	-.371**	.132	-.439**	.366**	.066	-.274**	1	
스트레스인지율변화율	.069	-.112	-.088	.133	-.130*	.150	.096	-.009	.087	1
우울감경험율변화율	.210**	-.031	-.152*	.066	-.246**	.124	.028	-.207**	.200**	.228**

표 7.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F	R	R ²
	B	표준오차유류	베타				
경제적 요인	(상수)	-2.80	.821				
	1인당지방세부담액평균변화율	-.014	.008	-.109	-1.732	12.975***	.386
	재정자립도평균변화율	-.523	.133	-.262	-3.923***		
사회 통합 요인	(상수)	-4.837	1.645				
	기초생활수급자비율평균변화율	.096	.038	.173	2.542*	4.927***	.317
	사회복지예산비율평균변화율	.037	.117	.021	.313		
사회 해체 요인	사회복지시설수평균변화율	-.025	.045	-.038	-.555		
	(상수)	-6.565	1.210				
	조이혼율평균변화율	-.190	.210	-.062	-.906	4.789***	.282
	우울감경험율평균변화율	.029	.013	.147	2.156*		
	스트레스인지율평균변화율	.000	.076	.000	-.005		
	1인가구비율평균변화율	.185	.069	.183	2.691*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2년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살률, 특히 지역별 자살률의 극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지역자살률과 관련 요인의 변화특성과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군·구별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의 순으로 나타나서 군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가장 높았다. 이는 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 요인의 변화에 따른 지역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자살률 변화의 차이에 있어서는 지역의 1인당 지방세가 증가하는 지역, 재정자립도가 개선되는 지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지표가 개선되는 지역에서 지역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살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통합요인의 변화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감소가 큰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감소가 적은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빈곤계층이 감소하여 상호 평등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지시설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등 사회 통합적 요인들이 강화 또는 유지될수록 지역 자살률의 감소가 큰 것이다. 셋째, 사회해체요인의 변화에 따른 자살률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경험율의 감소가 큰 지역, 1인 가구 증가가 적은 지역의 지역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해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가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자살률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역의 자살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으로요인중에서 재정자립도의 변화율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요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 변화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해

체요인중에서는 우울감 경험율의 변화율과 1인 가구비율 변화율이 자살률의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요인의 개선이 큰 지역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같은 사회통합 요소의 변화가 클수록 지역 자살률도 증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울감경험율과 1인 가구 비율과 같은 사회 해체적 요인이 증가할수록 지역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지역의 자살률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결과 자살률 변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 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자살률의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비율을 확대시키고, 전 연령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 지원제도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 중심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혼인을 감소와 만혼현상 및 이혼증가로 인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후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인구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1인 가구비율이 자살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1인가구비율의 변화율이 감소할수록 자살률 변화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시간이 길수록 직업과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 의미는 물질적·정서적으로 가족자원 획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저소득과 빈곤의 문제로 이어져 자살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장기

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노인여가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자살률의 변화율과도 유의미하다고 볼 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폭이 확대되어야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사료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활동에 치우치지 보다는 심신의 힐링 프로그램이나 전문 심리상담원을 배치하는 등 노인에게 유익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연도가 일정치 않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연도도 일정치 않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살률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5년-2015년의 변화율을 산출함에 있어 10년간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 사용하였으나, 추후에는 2005년과 2015년의 차이를 이용한 변화율을 활용하여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균변화율과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알맞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률 변화율과 요인 변화율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차후 특정 시점의 자살률과 영향요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두 연구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자살률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안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비율확대와 현금 및 현금지원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상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후속 연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연령층의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자살, 생계형 자살, 심리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여러 유형별로 자살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승용, "한국 노인 자살률 변동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181-205, 2004.
- [2] 김왕배, "자살과 해체사회,"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2호, pp.195-224, 2010.
- [3] E. Durkheim, *Le Suicide*, Etude de Sociologie, Alcan, Paris, 1987.
- [4] 박운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사회경제 보건 관련 요인 분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 주유형, *노인자살의 사·공간적 확산과 지역 환경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6] 유영직, *사·군 지역의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7] 김기원, *전국 광역시도별 노인자살 차이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8] 유정균,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가족불안정의 영향중심으로:1995-2005," 한국인구학회지, 제31권, 제2호, pp.21-44, 2008.
- [9] 허지정, 최막중,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제21권, 제4호, pp.47-60, 2013.
- [10] D. S. Hamermesh and N. M. Soss, "An economic theory of suici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1, pp.83-98, 1974.
- [11] 김민영, *한국사회의 자살률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12] 박일주,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지역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3] 김민영, 정광호, 금현섭, "경제위기와 자살률 간 탐색 연구: 15개 시도성별 연령별 자살률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73-302, 2011.
- [14]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

인," 한국 사회학, 제38권, 제4호, pp.33-71, 2004.

[15] V. Lorant, A. E. Kunst, M. Huisman, G. Costa, and J. Mackenbach,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uicide: a European comparative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87, No.1, pp.49-54, 2005.

[16] J. Sareen, T. O. Afifi, K. A. McMillan, and G. J. Asmundson,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mental disorders: findings from a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68, No.4, pp.419-427, 2011.

[17] D. J. Taylor, K. L. Lichstein, H. H. Durrence, B. W. Reidel, and A. J. Bush, "Epidemiology of insomnia, depression, and anxiety," *SLEEP*, Vol.28, No.11, pp.1457-1464, 2005.

[18] 우혜경, 조영태, "한국인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조기은퇴," *한국노년학*, 제33권, 제2호, pp.97-418, 2013.

[19] J. Hintikka, O. Kontula, P. Saarinen, A. Tanskanen, K. Koskela, and H. Viinamäki, "Debt and suicidal behaviour in the Finnish general populat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Vol.98, No.6, pp.493-496, 1998.

[20] P. S. Yip, K. C. Yang, B. Y. Ip, Y. W. Law, and R. Watson, "Financial Debt and Suicide in Hong Kong SAR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7, No.12, pp.2788-2799, 2007.

[21] S. Weyerer and A. Wiedenmann, "Economic factors and the rates of suicide in Germany between 1881 and 1989," *Psychological Reports*, Vol.76, No.3, pp.1331-1341, 1995.

[22] 윤우석, "사회적 통합과 자살률의 관계검증: 시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4호, pp.144-174, 2011.

[23] 김형수, 김신향,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15-224, 2014.

[24] 윤우석,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형사정책연구*, pp.319-354, 2012.

[25]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15.

[26] I. H. Burnley, "Socioeconomic and spatial differentials in mortality and means of committing suicide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1985-91," *Social Science & Medicine*, Vol.41, No.5, pp.687-698, 1995.

[27]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저 자 소개

이 용 재(Yong-Ja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 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김 경 미(Kyung-Mi Kim)

정회원



- 2017년 8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시간강사
- 2018년 3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자살